한국문학논총 제 36 집(2004. 4) 217~243쪽

부산·경남지역 저항소설 연구

정 찬 영*

차 례

Ⅰ. 한국 근현대문학과 부산·경남의 저항소설
Ⅱ. 일제 강점기의 형상화
1. 항일의지와 반봉건운동의 형상화
2. 경제적 수탈의 반민중성과 민중저항
3. 학병체험 소설과 징병 거부자의 수기
Ⅲ.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의 형상화
1. 해방공간의 혼란과 의미 탐색
2. 10월 인민항쟁의 반영
3. 한국전쟁의 비극성과 거창사건의 문학적 형상화
Ⅳ. 반민주주의에 대한 투쟁
1. 마산 3·15의거와 4·19혁명 정신의 계승
2. 6·3사태와 문학적 대응
3. 왜곡된 역사바로세우기
Ⅴ. 사회운동의 성장과 저항문학의 다양성
1. 반민족주의의 역사성과 의문사 고발
2. 장기수의 투쟁과 학생운동
3. 마창노동자 투쟁의 형상화와 노동소설
4. 환경문제와 도시빈민 소설
Ⅵ. 부산·경남 저항소설의 의의

Ⅰ. 한국 근현대문학과 부산·경남의 저항소설

20세기 세계사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의 근·현대 100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다. 이는 전 시대의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세계인식의 틀이 서구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

* 부산대학교 강사

과정에서 타율적이든 능동적이든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를 깊이 체험하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있어 왔다. 서구적 근대의 팽창주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속성을 띠며 주변 국가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해 왔고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 개항과 더불어 외세의 침입과 식민지 경험, 해방공간의 혼란과 전쟁 그리고 분단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설문학이 이들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면서 근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지역문제를 살펴보면, 주변부 또는 반주변부라는 국가모순 위에 지역적 차별이라는 또 다른 모순이 덧칠되어 있음을 보게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각 지역이 갖는 지역성을 지정학적 조건과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바탕으로 민족문학의 여러 모습과의 상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문학 연구의 의의는 기실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부산・경남지역의 저항소설을 통시적으로 조사, 검토함으로써 지역문학사 나아가 민족문학사에 기여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항문학은 다분히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개념이므로 명확한 의미규정을 하기가 힘들다. 저항문학에 대한 검토는 박준황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외국의 저항문학 사례를 프랑스와 아일랜드, 중국의 경우에서 찾으면서 우리의 항일문학을 살피고 있다. 두 용어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시대적, 민족적 특수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고 보면서 식민지 시기의 저항문학을 항일문학으로 설정하고 시대순과 작가별로 살피고 있다.[1] 그리고 김동수의 경우 저항문학을 계층에 대한 반항, 체제에 대한 반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저항 현상들이 문학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일반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2] 그러므로 저항문학은 일반적으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대한 저항, 체제의 비민주성과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저항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근・현대문학을 논할 때마다 강조되는 저

1) 박준황, 『항일문학론』, 세종출판공사, 1974.
2) 김동수, 『한국 현대 저항시 연구-1930년대 시와 1980년대 시의 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1995.6.

항문학 작가의 면면은 극소수에 국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일제강점기의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강경애 등과 1970년대의 민족문학론에서 내세운 김정한 등, 그리고 1980년대 민중문학론의 작가군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작가에 대한 연구는 상세하게 정리되었으며 작품세계와 사회적 삶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연구도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해금조치와 함께 이루어진 카프작가군과 월북작가들이 작품에 대해서도 이기영, 김남천 등과 같은 작가를 중심으로 연구의 성과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작가와 작품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옴으로써 연구영역을 한정시켜 온 것도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항일문학의 다양한 전개와 해방공간기의 민족문학, 그리고 한국전쟁과 그와 결부된 수많은 사건들, 예컨대 10월 항쟁, 4·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지리산 양민학살 사건 등과 그리고 4·19혁명에서 5·16 쿠테타, 6·3사태와 이후 이어지는 군사독재와 자본독재에 대한 민중의 저항 등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형상화한 저항문학은 아직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다.

한국현대소설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 의미 있는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3] 그러므로 이 분야는 더욱 많은 자료조사를 거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파행적인 전개과정으로 볼 때 저항문학의 가치는 돋보이는

3) 이런 점에서 최근의 김영화, 김동윤 등의 제주 4·3사건을 다룬 문학에 대한 연구나, 전흥남의 여순사건을 다룬 소설에 대한 연구, 거창양민학살을 다룬 소설 연구, 베트남전쟁 소재 소설을 다룬 연구 등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참고로 몇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학」, 『탐라문화』~~제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전흥남, 「『여순병란』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14집, 2000.
전흥남, 「『절망뒤에 오는 것』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127호, 2000.
특히 김영화, 김동윤 등은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전흥남은 전남의 한려대학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저항문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의 관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것이 사실이지만,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이러한 문학작품이 억압적인 현실에서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열과 같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작가와 작품의 저항적인 태도의 의미를 당대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항문학의 성격은 당대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역문학과 저항문학의 관점에서 부산·경남지역의 작가 또는 지역을 다룬 소설을 바탕으로 살피려 한다. 그리고 수기문학과 보고문학의 텍스트도 수용하였다. 이는 현장성과 당대적 효용성을 고려한 까닭이며, 또한 기록문학의 영역을 문학 연구의 영역에 포함하려는 의도의 소산이기도 하다.[4]

Ⅱ. 일제 강점기의 형상화

20세기의 벽두에 이루어진 일제의 무단 강점은 정치적 식민지를 강요하는 물리적 폭력과 강제적 자본주의의 이식이라는 경제적 예속화를 강요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민족 저항운동은 3·1 운동과 신간회 운동, 언론 학예투쟁 등과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농민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민족정신을 고무하여 왔다. 특히 부산 경남은 제국주의 침탈의 관문이자 일제 자본의 집중에 대한 민족자본의 저항과 노동자, 농민, 어민의 항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지역으로 당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집약된 곳이라 할 수 있다.[5]

문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시기의 문학은 항일독립투쟁 소설의 전개와 농민소설, 노동소설 등의 저항문학의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제국주의의 모순으로 발발한 제2차세계대전 말기, 일제에 의해 폭력적으로 자행된 강제징병

---

4) 대상작가의 경우 널리 알려져 있거나 지금도 왕성한 창작을 하고 있는 80년대 이후의 작가 등을 제외하고는 간략한 이력을 각주에 소개하기로 한다.

5) 특히 1920년대 부산에서의 항일운동과 민족자본의 형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항쟁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이귀원, 『1920년대 전반기 부산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노동자 계급의 항쟁』, 역사문제 연구소,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 여강, 1993.

과 관련한 텍스트들도 거론할 수 있겠다.

1. 항일의지와 반봉건운동의 형상화

박차정[6]의 항일의식과 현실관의 발단을 보여주는 글로써, 그녀가 동래일신여학교의 교지였던 『日新』¯2집에 실은 <徹夜>라는 소설을 들 수 있다. 동생 박문하의 글에 의하면, 이 소설은 차정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이라 한다.[7] 이 글은 아주 짧은 소설로 그 내용은 일제하에 3·1운동(필자 추정)으로 투옥되어 옥사를 한 독립투사의 자식인 철애와 철호가 어머니마저 병사하게 되자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밤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철애는 그들의 가난과 삶의 곤궁함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원인을 보다 근원적인 데서 찾고 있다. 곧 작품 말미에 "광명한 신사회를 조직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는 일제의 억압을 넘어서는 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8] 역시 박문하의 회고에 의하면 일신여학교의 동맹휴교는 차정이 주도

---

6) 박차정은 1910년 5월 8일 경남 동래 복천동 417 번지에서 아버지 박용한과 어머니 김맹련의 3남 2녀 중 넷째로 출생하였다. 당시 박차정의 집안은 항일의식이 강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차정의 부친 박용한은 을사조약 후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3·1운동이 있기 얼마전 한 통의 비장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했으며, 이후 어머니 김맹련은 5남매를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 삯바느질을 하는 등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다. 그녀는 동래군 기장면 출신으로 약산 김원봉과 의형제를 맺었던 약수 김두전과는 육촌 사이였고 김두봉과는 사촌의 사이였다. 이 같은 가계로 보더라도 어머니 역시 항일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기에 박차정의 형제들이 어려서부터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강한 항일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부산경남 3·1운동의 효시를 이루었던 동래일신여학교의 입학은 그녀의 항일의식을 더욱 굳게 했음에 틀림없다. 이후 그녀는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 활동을 하는 등 맹렬한 항쟁을 하다가 1944년 부녀봉사단 단장으로 한·중연합으로 치루어진 곤륜산 전투에서 적탄을 맞아, 5월 27일 사망하였다.
박차정의 삶에 대해서는 이송희, 『朴次貞 여사의 삶과 鬪爭-民族의 解放과 女性의 解放을 위해 鬪爭한 한 女性의 이야기-』, 『지역과 역사』¯1,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6.6 참조.

7) 박문하, 『누님 박차정』, 『八十年誌』, 학교법인 동래학원, 1975.

8) 이 소설을 세상에 알리고 글을 쓴 이는 박태일이다.
박태일, 『광복열사 박차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창간호, 경남지역문학

했고 이를 위해 노파로 변장하고 다녔으며, 자신은 그 연락을 하는데 다녔다는 점으로 보아, 이 소설은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려는 의도의 소산인 셈이다. 곧 일제의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민족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 나간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이후 열사의 삶의 행적을 살펴 볼 때 적극적인 항쟁의식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명희의 <낙동강>(『조선지광』, 1927.7)[9]은 1920년대의 격변기를 낙동강을 무대로 박성운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박성운은 3·1운동 이후 서간도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인물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다. 소설은 이 인물을 통해 1920년대의 일제의 가혹한 경제수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백정들이 계급타파를 외치며 일어섰던 1923년 진주 형평사 운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김해는 형평사 운동의 중요 활동공간으로 소설 속에서는 박성운의 애인인 로사가 등장함으로써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녀는 백정의 딸로 태어나 교사가 된 인물로 봉건적 모순을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계급의식을 선도하며 농촌운동을 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1920년대의 일제의 착취를 고발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농민운동과 신분모순에 저항하는 형평사 운동을 통해 반제·반봉건 의식을 적극적으로 보인다는 의의가 있다.

2. 경제적 수탈의 반민중성과 민중저항

회, 1997.

9) 조명희(1894-1938)는 충북 진천 출생으로 중앙고보를 중퇴하고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기도 하고 일본 동경 동양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문학의 꿈을 키우다 이후 카프에 적극 가담하였다가 1928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였고, 여기서도 그는 정력적인 문예활동을 펼치다 1938년 일본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했으나 스탈린 사후 복권되었다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낙동강』은 바로 낙동강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조갑상은 김해로 추측)에서 또한 진주에서 촉발된 형평사 운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저항문학으로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조갑상의『소설로 읽는 부산』(경성대출판부, 1988), 87-71쪽과 조갑상,『한국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경성대학교출판부, 1999) 47-55참조.

시인이자 의사로서 살다간 김대봉((1908-1943)은 김해 출신으로 그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몇 편이 있는 실정이지만,[10] 아직 그의 산문에 대해서는 발굴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11] 그의 <탕아>(『형상』~1, 1934. 2)는 원고지 10매 정도의 짧은 소설로 경제공황을 겪고있는 식민지 조선의 한 상인을 통해 일제의 경제적 착취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세계적 경제대공황의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작품의 주인물 철수는 이 공황기에 물건이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대금도 회수되지 않자 빚 독촉에 시달린다. 철수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평소 탕아로서 지내온 아들이기도 하거니와 나머지 열 일곱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는 거절한다. 철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약을 먹고 죽는시늉을 몇 일이나 한 끝에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보따리를 받지만 거기에는 돈이 아니라 식산은행과 척식회사와 금융조합에서 온 지불명금서만 있을 뿐이다. 이렇듯 이 소설은 한 상인의 경제적 몰락을 통해 식민지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갈파해 내고 있는 것이다.

엄흥섭의[12] <흘러간 마을>은 고통받는 농민의 삶과 최병식이라는 지주의

---

10) 이부순, 『시인 김대봉의 작품세계 연구』, 『서강어문』~제10집, 서강어문학회, 1994.12.
한정호,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제7·8합집, 경남대 국문과, 1995.12.
한정호, 『김대봉의 동시관과 동시세계』, 『지역문학연구』~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고현철,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 발굴 및 재조명 연구-김대봉 재발굴 및 재조명』, 『한국문학논총』~33집, 한국문학회, 2003.

11)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醫師의 助手」(『제일선』, 1932.10), 「蕩兒」(『형상』~1, 1934. 2), 「還鄕한 舞踊家」(『조선문단』~23, 1935. 5) 등이 있다.

12) 엄흥섭은 1909년 9월 9일 충남 논산군 채운면 양촌리에서 출생하였지만, 호적상 본적지는 경남 진주부 수정동 654번지로 되어 있으며 1926년 3월 경남도립 사범학교 졸업하고 진주에서 10리쯤 떨어진 '평거'란 농촌의 신설학교에 교원으로 부임, 5년간 교직생활을 하던 중 1929년 KAPF에 가맹하여 『조선문예』~1호에 시 「세거리로」를 발표하여 등단하였다. 이후 1930년 당대 민중의 현실을 제재로 한 「흘러간 마을」을 『조선지광』(1930.1)에 발표하고 선작인 「출범전야」를 『대중공론』(1930.9)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을 생산하게 된다.
박태일은 지역문인을 선정하는 근거로 단지 태생의 문제에 집착하는 경직된 속지주의를 벗어나 뜻 있는 문학활동이 이루어진 곳을 문제삼는 개방된 지연주

반민중적인 성격을 대비하여 그려 보임으로써 식민지 농촌의 수탈구조와 저항을 드러내 보인 소설이다. 그리고 뒤이은 <출범전야>는 K어업회사가 마을의 어업을 장악하여 어민들을 회사의 노동자로 만들어 착취를 하고 더구나 주점까지 운영하여 이중으로 착취를 하면서도 실종된 어민들의 보상금에는 대책을 세우질 않자 철용이를 중심으로 회사로 몰려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서사구조는 어업령 곧 일제의 세력을 등에 업은 국내 자본가 계급과 그에 빌붙어 부녀자를 희롱하는 등 횡포를 일삼는 감독과 어민들간의 계급대립 구도로 설정하여 당대 식민지 조선이 근본문제인 반제국주의와 반봉건 의식을 기조로 다루고 있으면서 어민들의 항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권환(1903-1954)[13]의 <목화와 콩> 역시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착취를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관청에서 농민들에게 목화나 뽕을 강제로 심게 하는 것은 주인공 필성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산이나 서울이나 동경이나 대판에 있는 제사회사, 방적회사의 실 만들고 베짜는 가음(原料)”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공동판매장이란 것은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 둔 것이 아니고, 제사회사나 방적회사들에게 헐케 사주기 위”한 것이다. 해서 필성을 위시한 농민들은 관청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해 콩을 심고 항의하면서 농민조합의 결성을 본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 조선의 농촌 착취 현실에 대해 농민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농민저항소설의 전범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요산 김정한(1908-1996)의 <사하촌>(『조선일보』, 1936.1)은 대표적인 식민지 농촌현실을 다룬 농민소설이다. 이 소설은 사찰 소유의 전답을 빌어 살아가는 사하촌 소작농민들의 빈궁과 삶의 고통을 그려낸 작품이다.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사하촌의 농민들은 절대적인 지주로 군림

의를 주장하면서 엄흥섭을 부산경남 지역문인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박태일, 『지역문학의 현실과 과제』, 『제주작가』, 2003년 여름호.

13) 권환은 창원출신의 계급주의 시인이자 평론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소설과 희곡 작품도 발표한 바 있다. 확인된 소설은 <앓고 있는 영(靈)>(『학조』~2 1927. 7), <목화(木花)와 콩>(『조선일보』~1931. 7.16-24), <참>(『비판』~114, 1940. 1) 등이다.

하고 있는 사찰의 횡포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일제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농민을 착취하는 사찰의 폭거를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구도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농민소설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작품들은 근대의 가면을 쓴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가 노동자, 농민, 어민 등 기층 민중의 삶과 중소 상인들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었는가를 고발, 비판하면서 그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저항의 구체성까지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즉자적인 저항에서 민중들의 조직적 조합운동까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항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라 하겠다.

3. 학병체험 소설과 징병 거부자의 수기

일제 강점기 막바지에 이루어진 강제 징병은 식민지 모순의 정점이라 할 만하다. 정신대 문제, 강제징용 등 결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당대의 삶에 가장 큰 억압적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제 징병과 관련한 작품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진대는 1920년 경남 함안읍 출생으로 일제치하에서 강제로 학병에 끌려가 전선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진 작가이다.[14] 작가의 학병체험은 <별빛과 더부러>(薛昌洙, 李敬純, 趙眞大 共著, 『三人集』, 嶺南文學會, 1952), <전선>(『전선문학』¯7, 1953.12), 「薰은 白痴었던가」(『영문』¯13, 1955.11)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우리는 이로써 학병세대의 문학적 발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薰은 白痴었던가>는 일제 말기 학도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징집 당한 훈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품은 강제징집을 강요하는 일제가 심지어는 부모형제를 잡아 가두어 학병을 강요한다든지,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병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이라든지, 금력과 권력으로 한국 내에 남은 사람들 역시 결국에는 남양으로 가게되었다는 사정을 증언하고 있다. 주인물인

14) 조진대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정찬영, 「체험의기록과 생명의식-조진대의 작품세계-」, 『한국근현대문학의 재인식』, 세종출판사, 2001 참조.

훈은 일본 대판에서 가까운 사가이 311부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한국학도는 30명이었다. 훈의 부대는 말을 다루고 짐을 꾸려 수레에 실어 갔다 나르는 훈련부대였지만, 훈은 군대생활에 적응을 못해 매번 구타당하고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훈은 일본군대의 규율을 찬양하는 말을 '도둑의 소굴'이 일본군대라고 마음속으로 자조하곤 한다. 그리고 미군의 공습에 대응하는 일본군의 모습에서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곧 "일본바닥의 곳곳을 이렇게 비행기가 자기 집처럼 드나들어도 고사포 하나 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적할 전투기 한 대도 보이지 않고 단지 소총을 가지고 비행기를 겨누고 있으니 필경 왜놈들이 망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강제 징집된 훈이라는 인물을 통해 학병징집의 폭력성과 일본군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별빛과 더부러」는 미군의 공습이 강해지는 항구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탄환과 폭탄이 떨어지는 전장터에서 오직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만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주인물 우식에게 이 전쟁의 의미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제의 담론은 허구임이 판명된다. 이는 또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나가무라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폭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어머니의 주검보다는 저금 통장을 찾음으로써 이 태평양전쟁의 폭력성은 일인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준수[15]의 <新版 林巨正-學兵拒否者의 手記>(『신천지』, 1946.4-6)는 학병거부와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을 다룬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를 귀한 수기문학이다.[16] 이병주의 『지리산』에서 박태영과 하준규 등이 학병을 거부하고

15) 하준수는 1920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하여 일본중앙대학에 유학하던 중 학병 강제징집을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비슷한 사람들을 규합하여 <보광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광복 직후에는 돈암장 시절 이승만의 경호대장을 맡기도 하였으나 친일파의 득세에 환멸을 느끼고 결별한다. 이후 1948년 남북연석회의 때 월북하여 한국전쟁 때 유격대 총사령관으로 남하하여 활동하다 휴전 후 1954년 대구에서 체포되어 처형된다. 자신의 수기에 의하면 하준수는 함양이 고향이고, 동경에서 6년간 머무르면서 당시 중앙대학 법학부 졸업반인 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혼하여 아내가 있었으며 공수가 4단인 수준급의 무예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16) 노가원은 『남도부』¯장하(월간 말, 1993)에서 하준수의 투쟁에 관한 면면을 세밀히 살피고 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 보광당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바로 이 수기의 내용에 살을 붙인 것이다.

수기는 1943년 8월 20일부터 시작한다. 이날은 조선인 징병제 실시의 전주곡으로 조선인 학생들에게 학병 강요를 시작한 이른바 '학병의 날'이다. 당시 하준수는 동료들과 학병 참가 여부를 토론하다가 "日本이 敗할 것은 當然한 일이니 우리는 일본을 爲하여 出戰하기를 拒否"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다. 하지만 연일 신문은 학병출정을 보도하고, 조선의 저명인사들까지도 학병출정을 권유할 뿐 아니라, 조선 총독 고이소는 협박과 회유를 해가면서 학병지원을 강요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사정을 두고 하준수와 동료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지만, 압력을 이기지 못한 부모들의 하소연을 거부할 수 없어 결국 13명의 동료들은 대부분 학병에 나가게 되고 오직 노동지만이 하준수와 함께 덕유산에 은신한다. 그러는 가운데 학병 도피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경찰의 추적이 본격화되자 괘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3월에 보광당을 조직하여 무장한 73명의 조직체로 성장한 것이다. 수기에는 덕유산에서 괘관산에 이르는 과정과 보광당을 조직하여 광복을 맞이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보광당원들은 화전을 일구면서 식량을 해결하고, 무기를 갖추어 일제에 대항하면서 연합군 상륙을 대비하여 유격대 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실제로 주재소를 습격하여 대여섯 자루의 총을 노획하기도 하고, 괘관산으로 습격해 온 산청군 경관대 10여 명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하준수의 수기에는 이렇듯 학병문제를 둘러싼 당시 일본과 국내의 급박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젊은 학생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매우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도피처를 찾던 하준수의 귀국 상황과 노동지와 함께 덕유산으로 도피하기까지의 과정을 절박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후 산에서의 생활이나 보광당 창설과 활동 등도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17] 이렇듯 이 수기는 강제징집에 대한 거부와 한반도 내부에서의 자생적인 무장투쟁이 있었음을 증언하는 사료적 가치뿐만 적극적인 대일투쟁이라는 저항문학의 성격을

17) 따라서 소설 『지리산』에서의 하준규와 박태영의 만남과 이들의 입산과정, 그리고 산에서의 생활과 보광당 창설이나 활동 등은 이 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작은 에피소드들까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찬영, 『한국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4장 참조.

갖추고 있다.

Ⅲ.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의 형상화

1945년 맞이한 해방은 곧 민족국가의 수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분단은 민족 내부 세력의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은 요원한 실정이 되고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고 만다. 소설문학은 이 시기의 혼란한 상황에 대한 반영과 10월 인민 항쟁, 토지개혁의 허구성 폭로, 그리고 한국전쟁의 성격과 이 사이 이루어진 많은 양민학살 사건 등을 일정부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1. 해방공간의 혼란과 의미 탐색

지하련[18](1953-1953)의 소설 중 <결별>, <산길>, <가을> 등은 여성의 관점에서 부부생활을 그려 보임으로써 당대의 여성해방운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체향초>, <종매>, <양> 등은 억압적인 식민지 현실을 버티는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는 소설들이다.

「도정」(『문학』Ⅰ, 1946. 8)은 지하련이 해방 뒤 남편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쓴 소설로 해방정국을 맞은 소시민 지식인의 내적 갈등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서사는 둘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6년 동안 공산당 활동으로 감옥살이를 한 주인공 석재가 해방을 맞기 전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다음은 해방정국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과거 소부르주아적인 근성을 분석해 내고 자신의 행동을 이기적이었노라고 고백한다. 후자의 경우는 해방의 현실의 곤혹함을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친구 기철이 당의 최고 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의 소부르조아적 근

18) 지하련은 본명이 이현욱으로 임화의 두 번째 부인이다. 경상도 거창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성장기를 보낸 지하련은 일본 도쿄의 쇼와여고와 도쿄경제전문학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을 다시금 반성하는 구조이다. 이렇듯 주인공 석재의 신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통해 작가는 해방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는 이 작품의 발표시기가 1946년 8월이라는 해방공간기였음을 상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10월 인민항쟁의 반영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10월 인민항쟁은 미군정의 반노동정책에 항의해서 일어난 9월 총파업의 연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곧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의 농성을 군・경・테러단이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한 것에 항의하는 군중집회에서 경찰이 발포해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촉발된다. 시위는 노동자・시민・학생이 합세해 관공서를 습격하는 사태로 이어지며 과격한 무력투쟁의 양상을 띠게 된다. 미군정과 경찰에 맞서며 대구에서 시작된 무력시위는 삽시간에 영남지방을 거쳐 남한 곳곳으로 번진다. 9월총파업은 전평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지만 10월에 들어 일어난 항쟁은 공산당의 통제권 밖에서 민중의 불만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특징이 있다. 이 사태로 전국의 경찰서・파출소・면사무소가 파괴되고 많은 희생자가 생긴다.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의 여파로 공산당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지방에 남아있던 인민위원회조직도 대부분 와해된다.[19]

김정한의 <설날>은 인민항쟁 이듬해인 1947년 6월 『문학비평』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아버지가 인민항쟁의 희생자로 호출되어 간 날 저녁에 태어나서

---

19) 10월 항쟁을 다룬 문학에 대한 연구는 박신헌의 「들뜸과 흥분의 고현학」(『상상력과 비평』, 형설출판사, 1988)에 일부 다루어져 있지만 실제 작품의 수는 더욱 많다. 또한 항쟁 당대에 조선문학가동맹은 기관지 『문학』 3・1기념 임시증간호(1947.2)에서 인민항쟁 특집을 다루어 시2편 소설 5편을 싣고 있다. 그 외에도 항쟁을 다룬 많은 평문과 희곡 작품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섬세한 연구가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에 대해서는 박용찬, 「해방직후 10월항쟁의 시적 형상화과정 연구」(『국어교육연구』 25, 경북사대국어교육연구회, 1993.12) 참조. 그러므로 10월 항쟁을 다룬 소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김정한의 <옥중화갑>과 <설날>을 더욱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요산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아이의 가정을 통해 가족사의 비극을 민족사의 비극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호출이네 가족은 설날이 되어도 함께 있지 못한다. 호출은 지금 어머니와 피신해서 살고 있다. 그 까닭은 그의 아버지가 1946년 10월 인민항쟁의 희생자로, 아버지는 인민의 권리를 외치다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외할아버지와 아저씨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설날을 가족들은 각각 쓸쓸히 설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호출의 어머니는 외출을 할 때는 변장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또한 스파이를 불안해하고 아버지의 면회를 할 때면 다른 사람이 이름을 기재한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인민의 이익’을 주장하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워 온 투사들’을 박해하고 투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10월 항쟁의 정당성을 식민지 독립투쟁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면서 해방정국의 혼란한 자리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작품이다.

3. 한국전쟁의 비극성과 거창사건의 문학적 형상화

분단의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한국전쟁은 전쟁의 참혹함뿐만 아니라 민중들에겐 편가르기를 강요한 시대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며 소설문학은 당연히 그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릴 소명의식으로 이를 형상화한다.

김춘복(1938년 7월 12일 경남 밀양군 산내면 남명리 동명동에서 출생)의 <烙印>(『현대문학』~54, 1959.6)은 한국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한 쌍둥이 형제의 처참한 몸부림이 동생인 ‘나’의 시선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들 형제는 피난민으로 산 속에서 숯을 구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서 폭력적인 피해를 당하는 인물이다. 쌍둥이 형은 빨치산을 안내하여 지서를 습격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어 있고, 동생인 ‘나’는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빨치산을 죽이고 탈출한 사실로 빨치산에 쫓기는 인물이다. 하지만 지서에서 나온 두 형사는 동생인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형으로 오인하여 고문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뜻을 굽히지 않자 급기야 그들은 빨치산인 양 연극을 꾸며 ‘나’가 형이라는 그들이 의도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고야 만다. 이렇듯 이 소설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민중의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쌍둥이 형제라는 구조를 통해 보여주면서 민중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이 발표된 시점인 1959년은 이승만 정권 말기로 그야말로 반공이데올로기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다. 이런 시절에 젊은 작가의 작품이 경찰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다는 점은 그대로 곧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과 같다.[20]

김원일(1942년 경남 진영 출생)의 <어둠의 혼>(국민서관, 1973)은 잘 알려져 있듯이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소년의 시각을 통하여 제시하면서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 남겨 준 상흔과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어린이의 시각을 통하여 그려냄으로써 분단 문학을 다루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작가는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면서 꾸준히 한국전쟁의 실체를 탐색하는 소설을 써 오면서 『불의제전』(전7권, 문학과지성사, 1997)이라는 역작을 내놓게 된다. 이 소설은 분단소설의 연장선에서 그 분단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진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단문학의 다른 이름이 통일 지향의 문학이라 할 때, 한국전쟁에 대한 문학적 의미 탐색은 곧 분단 극복의 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작가의식의 소산인 것이다.[21]

김원일의 『겨울골짜기』(전2권, 민음사, 1987)는 1951년 2월 10일에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소재로 한 증언소설이다. 따라서 작품의 대부분은 당대를 다룬 사료와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사실적 상상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은 1950년 11월초부터 거창사건이 발생한 1951년 2월 10일까지를 순차적으로 다루면서 거창사건의 전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서사의 특성은 전체 여섯 장

---

20) 이후 김춘복은 장편소설 『쌈짓골』을 통해 해방직후 농지개혁에 대한 배반으로 이루어진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을 그리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가 도리어 금력과 권력의 화신이 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분단과 한국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농민들의 삶과 도시근대화로 인한 농민들의 해체와 질곡한 삶에 대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김정한으로부터 이어지는 농민소설의 계보를 잇는다는 문학사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 농촌 현실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한 통찰을 요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21) 이 소설에 대해서는 정찬영, 『한국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6장 참조.

으로 구성하여 공간과 인물을 각각 산과 마을, 문한득과 문한돌의 시선을 교차하면서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런 수법으로 거창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세세한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성격을 대리전쟁으로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주체적 역사인식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정권 모두를 폭력의 속성을 갖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민족주의와 지식인과 기층민중의 상호성을 전제로 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22] 표성흠의 『토우』(전6권, 현암사, 1992) 역시 한국전쟁의 참혹함을 거창양민학살 사건을 핵심적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Ⅳ. 반민주주의에 대한 투쟁

한국전쟁 이후 더욱 독재체제를 강화한 이승만 정권은 필연적으로 민중의 항거를 피할 수 없었으며, 민중의 항거는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급기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권을 수립한다. 하지만 뒤이은 군사 쿠테타는 또다시 민중의 예속화를 강요하게 되고 이 또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1. 마산 3·15의거와 4·19혁명 정신의 계승

작가 김춘복은 4·19의 역사성을 일제강점기부터 쌓여온 민족의 내부모순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계절풍』(한길사, 1979)에서 밝힌 친일 반민족 행위-분단고착화-외래 독점자본과의 결탁-국내 소수 독재정치의 성립-부정부패와 탄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속편이라 밝힌 『꽃바람 꽃샘바람』(일월서각 1986, 동광출판사 1989)을 임헌영은 4월 혁명의 민중적 정신의 연원을 찾고 있는 것이라 파악한다.[23] 이 소설은 작가가 밝히고 있듯이 "4월 혁명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구조적인 안목으로 통찰함으로써 사료적 역사적 가치"를 형

22) 이 소설에 대해서는 정찬영, 「김원일의 <겨울골짜기>론-거창사건의 문학적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15, 초대소설학회 2001 참조.

23) 임헌영, 『4월혁명과 민족주체의식의 변화』, 『꽃바람 꽃샘바람』, 동광출판사, 1989 370쪽.

상화한 증언소설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자료수집과 대구와 마산 등의 현장답사, 그리고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인 권찬주 여사 등의 증언 등에 2년 이상을 소비하고 있음을 작품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대구 2・28항의를 시작으로 한 4월 혁명을 담아내려는 의도로, 마산 3・15의거 전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소설의 공간은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을 비롯한 영남지방으로 잡고, 인물은 고교생과 졸업생을 중심에 두면서 점차 대학생과 지식인, 농민 등 시민과 집권세력의 대립으로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혁명에 참여하는 세력으로 김관섭, 이지욱을 비롯한 학생들과 송치호, 한성욱 등의 교사, 그리고 언론계의 권혁세와 기층민중 들 일부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유당과 그 특권층에 대한 옹호세력으로는 학교 이사장이요 국회의원인 H, 이와 밀착해 있는 교장과 교감, 훈육주임, 경찰서장과 형사들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 소설은 의거의 현장을 생생히 담아내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사임까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윤정규(1937-2002)의 <사족기행>(『창작과비평』10, 1968 여름)은 운수회사 업무담당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그'의 시선을 통해 4・19혁명의 전후과정을 보여주면서 변함없는 부정과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는 유력한 정치가 이진만 의원의 후원으로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 임화수와 이정재의 하수인으로 4월 혁명의 전날 일어난 4・18 고대생 피습사건의 주도적 인물이다. 이후 그는 감옥을 살다가 출옥한 후 여전히 건재한 이진만의 후원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Y교수를 테러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던 중 오히려 그가 죽게되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5・16 쿠테타 이후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내세우는 근대화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4・19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2. 6・3사태와 문학적 대응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은 군사정권에 의해 짓밟히고, 이어 군사정권은 한일협정을 조인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6・3사건은 굴욕적인 대일협상에 대한 저항이었고 표문태(1914년 1월 15일 경남 밀양 출생)의 「서러운 사람들」(월간 대화, 1977.5.6)은 우선적으로 한일협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서러운 사람들』의 노완진은 일제 때 전문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완고한 민족주의자인데, 한일친선의 기운이 높아가는 분위기를 우려하면서 어느새 우리사회에서 퍼져 가고있는 일본풍(연예인 일본 보내기, 일제 내의 선물 주고받기 등)에 환멸을 느끼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 인물을 통해 학생들의 데모가 정치적 굴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상품시장화할 것이라는 경고임을 밝혀 보여주면서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국제정세에 걸고, 민족의 자립을 외국의 원조에 기대는 한국의 풍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5·16쿠테타로 집권한 3공화국의 폭력성은 교수들이 주축이 된 통일연구단체를 조사하면서 통일론자들을 반미주의자로, 용공분자로 몰아가는 경찰의 폭력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와중에 노완진은 나아가 학생들의 시위를 한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성은 한일협정 반대를 외치는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고스란히 반복된다. 또한 민족 자주와 주체의식을 강조하면서 일어난 학생들의 대응을 일부 국민의 열등의식과 야당의 정쟁이며, 불순분자들의 선전이라는 언론인 유지광의 말에 분노하는 노완진을 통해 왜곡된 민족의식과 민족의식을 부추기는 데는 언론과 같은 상층부 인사들이 앞장 서 왔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한일협정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는 소설이다.

3. 왜곡된 역사바로세우기

이주홍(1906-1987, 경남 합천 출생)의 <불시착>(『창작과비평』9, 1968 봄)은 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소설이다. 독립투사인 아버지를 둔 인물인 동주가 환갑이 넘어 40여 년만에 고향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을 찾는 겉구조를 가진 이 소설은 기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얼마나 곤궁하고도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면서, 해방 이후의 정국에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기득권층이 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곧 유년기의 희준에서 손돌이로 그리고 동주로 이름이 바뀐 주인공의 운명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할망정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 사실까지도 숨기며 살아야 했던 분단 현대사의 비극성과 역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주의 아버지는 서당훈장을 하다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순절한 인물이며, 그 어머

니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후 질병에 걸려 열 다섯의 동주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소설은 이제 그 동주가 나이 육십이 되어 고향을 찾아들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멸감과 괴로움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다른 의미 하나는 아버지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이는 3・1운동이후의 식민지에서의 삶과 해방과 전쟁, 분단으로 이어지는 파행적인 한국현대사에서 그저 소시민으로의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갖는다.[24]

Ⅴ. 사회운동의 성장과 저항문학의 다양성

1980년대의 민중・민족문학론과 19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중・민족 의식은 이후 성숙한 사회운동으로 변화・발전하게 되며 저항문학은 이런 운동의 다양성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의문사를 다룬 소설, 노동 소설, 장기수 소설, 교육소설, 환경소설 등 소재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주제의 깊이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 반민족주의의 역사성과 의문사 고발

김영현(1955년 경남 창녕 출생)의 <목격자>(『깊은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는 백범 암살범인 안두희의 시선을 좋으면서 학생운동을 한 대학생의 암매장을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

24) 이외에도 역사바로세우기에는 아직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정신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을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작품으로는 김정한의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를 비롯해서 최해군의 <탈출구>, <수렁>, <파문>, 조갑상의 <살아있는 사람들> 등을 들 수 있으며, 1990년대 이후의 소설로는 구영도의 <수망굿>과 <남양아리랑>과 성병오의 『은하에 잠긴 별』~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강제 징용된 조선인의 삶을 다룬 이규정의 『부처님의 멀미』, <사이판의 해오씨>를 비롯해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형상화한 『먼 땅 가까운 하늘』을 들 수 있다. 황국명, 「90년대 부산소설의 지형」,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189-190쪽.

"동지들!
이제 저는 가야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는가를!
그러한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들의 가치를!
- 부산대생 장재완군의 유서 중에서"

작품의 말미에 인용된 이 유서[25]가 창작동기가 된 이 소설은 우선 백범 암살자인 안두희의 내면을 그리면서 진정한 백범의 암살범은 민족적 가치를 외면한 반민족적인 폭력적인 지배권력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또한 민족과 민주를 짓밟는 1980년대의 폭력적인 정권의 실상을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의문사 가운데 하나인 한 청년 열사의 죽음의 암매장을 40년 전의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가 목격한 것으로 엮어나가면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폭력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장기수의 투쟁과 학생운동

1980년대 말, 장기수를 다룬 소설 <살아있는 무덤>으로 무단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던 김하기(1958년 울산 출생)는 이후 <완전한 만남>, <뿌리내리기> 등 장기수 소재 소설을 발표하면서 1990년에는 일련의 소설을 묶어 소설집『완전한 만남』(창작과비평사, 1990)을 펴냈다. 작가 자신이 학생운동으로 한 감옥 경험을 통해 만난 장기수들의 투쟁과 삶은 비로소 작가의 소설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뿌리 내리기>(『실천문학』~1990 봄)는 대학생 김두혁이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비전향장기수가 수용된 특별사동에 수용되게 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두혁은 그곳에서 장기수인 박중린을 만나게 되고 그와 점차 가까워지면서 민족의 아픔과 그 투쟁의 역사, 그 역사성을 인식하게 되어간다. 일제강점기의

25) 실명으로 거론된 유서의 당사자인 장재완은 1983년 3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학하여 방위로 복무하던 중, 1987년 3월 23일 귀가하다 버스에서 중요문건이 든 가방을 분실한 후 1987년 3월 27일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한 아버지를 둔 박중린, 그 역시 민족의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투사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혁의 박중린에게의 동화는 궁극적으로 민족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 무장투쟁을 하던 박중린의 아버지가 계신 백두산의 자작나무의 상징성이 이감가는 두혁의 가슴 속에 전승되는 장면은 반민족세력에 대한 투쟁의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치이다.

3. 마창노동자 투쟁의 형상화와 노동소설

윤정규가 이미 1970년대에 <불타는 화염>(『불타는 화염』, 일월서각, 1979)을 통해 계급이해의 관점에서 자본축적의 과정과 노동자 조직의 건설을 시도한 이래 노동소설은 변화와 발전을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문학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26]

김하경의 『그해 여름』(세계, 1991)은 제3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으로 마창노운(마산창원노동운동)의 투쟁을 다룬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다루면서 현대정공, 한국중공업, 효성중공업, 세신실업, 대우중공업, 한일합섬, 기아기공, 수출자유지역 입주공장들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일산업 민주노조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내 사랑 마창노련』~장·하는 작가가 3년간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 엮어낸 일종의 보고문학으로,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1987년 12월14일 경남 마산의 한 중국집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공단의 19개 노조 관계자들 50여명이 만나 해방 이후 첫 노동자 지역연대 조직인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을 결성하는 순간부터, 1995년 12월 16일 민주노총 결성을 위해 발전적 해산을 하기까지 마창노련의 8년 역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노문연의 문학분과 '쇳물결'의 회원인 신윤덕의 「허터지면 죽

26) 황국명은 윤정규의 이 중편소설을 숙련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자본에 대항할 노동자조직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석영의 <객지>보다 나아간 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윤진상의 <하얀불꽃>, 정종수의 『평강리』(광야, 1991), 『삼각주』(광야, 1993), 정하룡의 『쑥꽃사랑』(석탑, 1996) 등과 같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황국명, 앞의 글, 197-198쪽.

는다』(『노동자문화통신』~3, 새길, 1990)는 1988년 하반기 마창의 한 사업장에서 있었던 50여일 간의 투쟁과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을 보고하고 있는 보고문학이다.

노동현장에서 활동해 온 소설가 방현석(1961년 경남 울산 출생)은 6월항쟁 직후 노동현장을 소재로 한 단편 <내딛는 첫발은>(『실천문학』~1988 봄) 을 통해 현장성을 생생히 재현하면서 노동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서서 현실을 파악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인간답게 살고 싶은' 기본권을 위한 투쟁을 그려내고 있다.

회사에 강하게 대항했다가 무참히 해고당하고 끈질긴 복직투쟁을 계속하는 해고자인 성만을 그리고 있는 <내일을 여는 집>(『창작과비평』~1990 봄)은 노조민주화투쟁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못했던 성만이 복직소식을 전하는 직장동지들과 간단한 축하식을 하는 장면에서 종결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복직소식을 듣는 날 오전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다가 과거에 노조에 가담했다는 회사의 제보로 번번이 실패하고 그 고통 속에 부대끼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한 공장에서 노조일로 해고당하면 회사들간의 정보교환과 블랙 리스트 때문에 아무 곳에I취직할 수 없는 지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주인공 상만의 중학교 때의 회상장면을 통해 자본주의에서의 학교교육 제도가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교육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과 남녀 평등에 기초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미덕을 아울러 갖고 있다.

4. 환경문제와 도시빈민 소설

이남희(1958년 부산 출생)의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풀빛, 1991)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의 당항이라고 하는 한 남쪽의 작은 어촌(작가의 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온산이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크진 않지만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는 이 어촌에 어느 날 갑자기 중화학 금속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생존권 침해와 공해로 인한 오염, 자연과 인간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그

들의 생활 구조와 인간 관계는 급속히 파괴되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여기서 비극적 인물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죽거나 사라지거나 병든다. 다른 한편에선 자본의 흥청거림과 낯선 활기가 감돈다. 이 느닷없는 변화 앞에서 젊은이들은 상처를 입고 방황한다. 그러다 점차 그들은 변화의 정체를 감지하게 되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싸움의 성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안으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투쟁의 목표와 조직상의 혼선을 빚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바깥으로는 사찰과 탄압, 공권력 투입의 위협, 공단 측의 이간, 회유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 작가는 이 과정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온산공단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逆産>(『지붕과 하늘』, 문예출판사, 1989)은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철거당하는 순임의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화의 허울에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도시빈민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일찍이 우리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알고 있거니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도시빈민들은 철거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도시빈민 문제의 현재성을 직시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Ⅵ. 부산・경남 저항소설의 의의

서구적 근대의 다른 이름인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침략과 수탈을 동반하게 된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제병합은 바로 바로 이런 모순의 집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저항문학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해방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부침 속에서 전통성이 취약한 정권의 속성이 다분히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 속성을 띠고 있었다면 저항문학의 속성은 역시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을 고양하는 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부산・경남지역의 저항정신 역시 면면히 흘러온 낙동강과 같았다. 따라서 저항문학이라는 틀 속에서 부산・경남지역의 소설

문학을 살피는 일은 지역문학의 특수성을 견지하고 나아가 민족문학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시각을 견지하면서 부산・경남지역의 저항문학을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27]

광복열사 박차정의 소설은 비록 구체적인 저항의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열사의 삶의 행적을 살펴 볼 때 적극적인 저항의식의 산물로 읽혀야 할 것이다. 또한 조명희의 <낙동강>은 아직도 남아있는 봉건적 신분타파를 그려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저항문학의 목표의식에 닿아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강제학병징집에 대한 고발이나 이를 거부하고 산 속에서 적극적인 항쟁을 벌이는 과정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는 조진대의 소설과 하준수의 수기는 저항문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과 어촌,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서 이루어진 수탈체제에 대한 고발과 저항을 다룬 소설들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식까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해방이 민족국가의 수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들과의 투쟁을 다룬 소설은 곧 저항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해방 이후의 혼란한 시대상과 10월 인민 항쟁, 그리고 한국전쟁의 폭력성과 양민학살 사건 등을 다룬 소설은 일정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 정권과 이에 결탁한 자본가 계급에 대항한 3・15의거와 4・19혁명, 6・3항쟁을 다룬 소설, 그리고 정신대문제와 의문사를 다룬 소설, 노동 소설, 장기수 소설, 환경소설 등의 의의 역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현대사가 갖고 있는 민족모순과 민중모순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저항소설, 저항의식, 부산・경남지역문학

27) 개관을 살피는 글의 성격과 지면의 한계 그리고 연구자의 역량부족으로 남겨진 문제는 필자의 몫이다. 후고에 미룬다.

참고문헌

김동수,「한국 현대 저항시 연구-1930년대 시와 1980년대 시의 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1995.6.

김동윤,『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영철,「신한민보의 저항시 연구」,『건대학술지』~34, 건국대, 1990.

김영화,「제주 역사와 문학」,『탐라문화』~제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민병기,「포석 조명희 연구」,『사림어문연구』~6, 1989.

민현기,「일제하 항일 독립투쟁소설연구」,『지역사회와 민족운동』~1, 1987.4.

박신헌,「들뜸과 홍분의 고현학」,『상상력과 비평』, 형설출판사, 1988.

박용찬,「해방직후 10월항쟁의 시적 형상화과정 연구」,『국어교육연구』~25,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93.12.

박태일,「광복열사 박차정의 삶과 문학」,『지역문학연구』~창간호, 경남지역문학회, 1997.

박태일,「지역문학의 현실과 과제」,『제주작가』, 2003 여름.

이송희,「朴次貞 여사의 삶과 鬪爭-民族의 解放과 女性의 解放을 위해 鬪爭한 한 女性의 이야기-」,『지역과 역사』~1,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6.6.

박문하,「누님 박차정」,『八十年誌』, 학교법인 동래학원, 1975.

박준황,『항일문학론』, 세종출판공사, 1974.

역사문제연구소,『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Ⅰ·영남편』, 여강, 1993.

이부순,「시인 김대봉의 작품세계 연구」,『서강어문』~제10집, 서강어문학회, 1994.12.

임미옥,「한국근대 저항시의 유형과 특성」, 건국대 교육대학원, 2000.

임헌영,「4월혁명과 민족주체의식의 변화」,『꽃바람 꽃샘바람』, 동광출판사, 1989.

임헌영,「낙동강론」,『낙동강』, 풀빛, 1988.

전홍남,「『여순병란』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현대문학이론연구』~1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0.

전흥남, 「『절망뒤에 오는 것』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127호, 국어국문학회, 2000.
정찬영, 「김원일의 <겨울골짜기>론-거창사건의 문학적 형상화」, 『현대소설연구』~15, 현대소설학회, 2001.
정찬영, 「체험의기록과 생명의식-조진대의 작품세계-」, 『한국근현대문학의 재인식』, 세종출판사, 2001.
정찬영, 『한국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조갑상, 『소설로 읽는 부산』, 경성대출판부, 1988.
조갑상, 『한국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 경성대출판부, 1999
최명환, 「항일 저항시의 정신사적 맥락」, 『국어교육』~5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6.
한정호, 「김대봉의 동시관과 동시세계」, 『지역문학연구』~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한정호,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제7·8합집, 경남대 국문과, 1995.12.
황국명, 「90년대 부산소설의 지형」,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Abstract>

The Resistant Novels in Pusan and Kyeongnam Province

Jeong, Chan-Young

This article is a chronological study that examines resistant novels as the view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popular spirit in Pusan and Kyeongnam province. Therefore, the Resistant novels are what are described the national and the popular conflicts and their resistances, which had been in our Korean modern history.

In the colonial period, they were describing the colonial capitalistic conflicts through the anti-Japanese spirit, the abolition of the conventional rank-system, and complaints and resistances against the Japanese exploitative systems all over the country.

After the 1945 Liberation, there had been many works, which were novelized the Japanese compulsory conscription of Korean student-soldiers in the closing days of the colonial period, and their denial of the conscription and then the armed struggle against Japan.

From the 1945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there were many Resistant novels that described conflicts of establishing the nation-state, the October-struggle and its social background, and the violence and the massacre of innocent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After 1960s, Resistant novels have been describing the 3·15 patriotic movement in Masan, the 6·3 Resistance, the Korean comfort girls and their wounded hearts, mysterious deaths of the patriotic people, labor problems, long-term prisoners, and problems of our environment.

Key Words: resistant novels, resistance consciousness, pusan and kyeongnam regional literature